



그 사람 지금은

(45) '한국 춤 명인' 이매방 선생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광주 양림동

# “마음이 고와야 춤도 곱고 노래도 고와져”

“확고한 전통 위에 창작이 있는 게야, 전통을 알지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겠어”

‘한국춤의 명인’ 이매방(81) 선생의 우리 춤에 대한 자부심과 고집은 상상을 초월한다.

평생을 춤에 바쳐 온 영원한 춤꾼 이매방 선생을 만나러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자택을 찾았다.

4층짜리 빌라의 3~4층 2개 층을 쓰고 있었다. 3층은 살림집, 4층은 춤 연습실이었다.

이 선생은 6년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 70대 중반에 위를 모두 들어내는 대수술을 받아 60kg이던 몸무게가 44kg으로 줄었다. 나이도 나이러니와 대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30분에서 1시간 가량 4층 연습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



1987년께 개인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당시 아권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매방(오른쪽에서 세번째).

자택을 찾았을 때 이 옹은 재봉틀로 옷을 만들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 20분 가량 옷을 만드느라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이 옹의 재봉틀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100년이 넘는 것이다. 이 옹은 항상 웬만한 무대복은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한복, 일상복도 천을 떠 직접 만들어 입는다. 기성복도 맘에 안들면 다시 뜯어 고쳐서 입는다고 한다.

인터뷰를 위해 몇 마디 몰었지만 별다른 대꾸도 없이 제자에게 연습실을 보여주라고 한다. 연습실은 별다른 장식 하나 없이 나무 마루 바닥에 하얀 벽지가 전부였다. 다만 연습실 벽면에 이 옹의 전성기 시절 춤사위를 담은 대형 사진이 걸

체크하는 것이다. 장단이 맞는 지, 손동작이 어긋나지는 않는 지 등 그의 눈은 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는다.

제자가 많은 탓에 화면상에서 50, 60대 제자들이 잘 분간되지 않으면 옆자리 있는 제자에게 이름을 묻는다. 나중이라도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란다.

연습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은 예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지만 엄한 자세는 변함없다. 맘에 들지 않으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어김없이 욱이 튀어 나온다.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고, 노래가 곱고, 얼굴이 곱다’

## “춤 배우고 나면 발길 조차 끊어버리는 ‘간판’ 위주 요즘 세대 정말 아쉬워”

- 약력**
- ▲1927년 목포 출생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1996년)
  - ▲웅인대 무용학과 교수
  -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 ▲21세기 문화예술진흥회 고문

려 있을 뿐이었다. 연습실을 둘러보고 오니 공연 DVD를 틀어주라고 한다.

올 초 자신의 팔순을 기념해 제자들이 마련해 준 공연이다. 공연 DVD를 1시간 가량 본 뒤에야 인터뷰가 가능했다.

이 옹은 수술 이후 허리가 30도 가량 굽어져 보기에 열락 없는 노인이다. 하지만 무대에만 서면 그 굽었던 허리가 깨끗해진다. 인터뷰 도중에도 간단한 동작을 선보일 때면 오척 단신이 적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듯할 뿐만 아니라 손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넘쳐난다.

결에 있던 제자는 “무대에만 서면 저렇게 허리가 반듯해지셔요. 참 신기해요. 무대와 연결되는 신기가 있는 것인 자~”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이지만 이 옹의 설명은 다르다.

“이매방도 늙으니가 별수없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야, 천하에 이매방이 허리가 굽었다는 말을 들을 수 는 없잖아. 왜 안 아프겠어. 허리를 반듯하게 펴면 너무나 아파 하지만 참아야지. 제자들과 큰 길을 걸거나 무대에 설 때만은 반듯이 견지만 사람들이 안보이면 얼른 다시 굽히지. 사실 굽히는 것이 안 아프고 편해”

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빌라에서 조교 백경우(40)씨와 단들이 산다. 같은 무

용인인 부인 김명자(64)씨는 부산에서 출강하며 무용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온다. 굳이 표현하자면 주말부부인 셈이다. 외동딸 현주씨도 따로 무용활동을 하고 있다.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그는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었다. 식성이 좋은 편이지만 수술한 뒤로는 소화기 되지 않아 의사의 말대로 하루에 소량의 음식을 5차례 정도 나눠 먹는다. 맵고 짠 것은 피하고, 초콜릿 같은 단 것은 조금씩 먹는다고 한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그는 가벼운 동작으로 몸을 푼다고 한다. 시간가는 대로 춤도 춘다.

“내가 수술 후에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다 춤 때문이야. 춤은 전신운동이야. 힘들지만 체력을 키우고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는 춤보다 좋은 게 없지”

수술 직후 술, 담배를 끊고 몸도 예전같지 않자 자연히 공연 DVD를 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한다. 제자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공연 DVD를 보면서 제자들의 기량을

## “전통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겠나”

그의 거실에 걸린 역자의 글귀다. 자신의 평소 신념을 적은 것이라고 한다.

춤은 물론 세상사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요즘 애들은 얼굴은 예쁘데 마음이 아니야. 처음 문화에 들어와 춤을 배울 때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듯 싫어도 이수증 하나 받으면 발을 끊기가 일쑤야. 이수증이 문제가 아니라 춤은 평생을 해도 모자라는 것인데, 애들애겐 간판만 필요한 게지. 그건 춤이 아니야.”

일부 제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공연을 이 옹에게 알려지도 않았으면서 이 옹의 인사말을 제멋대로 심는다고 한다. 내용은 대개 자신이 이 옹이 가장 아끼는 제자라는 투로 쓰여 있다는 것이다.

내용과 실질 보다는 인간문화재 제자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을 이용하려는 세대가 아쉽다며 혀를 찼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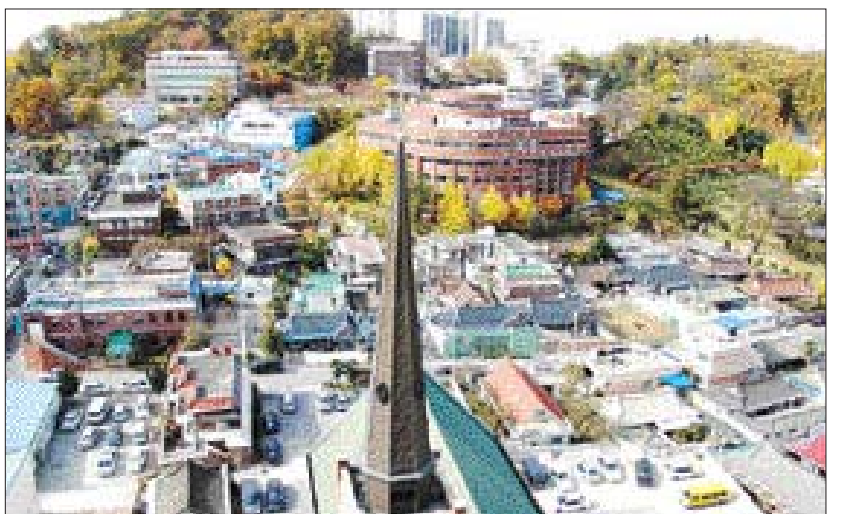
## 20C 초 제중원·수피아·송일학교 등 醫·學 선교 활동...‘광주의 예루살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상 안에는 ‘역사문화촌’이 포함돼 있다. 문화전당 서편 옛 조탄(漕灘)강(광주천) 건너 양림산(109m) 자락에 안겨 있는 마을이 대상이다. 울창한 버드나무가 강변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서 기원한 ‘버드림(楊林)’으로 ‘광주의 예루살렘’, ‘서양촌’라 부른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현 서쪽 2리에 양림(陽林)산이 있다고 나온다. 1611년 광주 정씨 조계(藻溪) 정만중(鄭萬鍾)의 아들 엄(淹)을 기린 정려(旌閭)에 양촌(楊村)이 보이고, 1759년 여지도서 광주목 부동방(不動坊)면 효자 정업에도 양림촌이 적혀있다.

20세기 초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 양림동은 관죽전(官竹田) 터였고, 종묘장과 잠입취체소가 있었다. 1896년 남장로교회 테이트, 레이놀즈, 해리스, 전킨, 벨이 광주를 답사했다.

1898년 벨(Eugene Bell·襄裕社·1868~1925)목사와 오웬(吳基元·1867~1909)의사는 목포에 도착했고, 나주 선교부가 어렵게 되자 1904년 프레스톤(변요한)과 함께 광주를 방문했다. 12월 21일 이사했고, 성탄절날 108-2번지(옛 광주여성회관)에서 첫 예배를 올린다.



옛 송일학교가 자리했던 무등맨션에서 바라본 양림동.

광주교회는 1906년 북문안 사창골 역안교(총장로3가 26번지)터에 50여명의 ‘1’자형 교회를 지어 이사했다. 3·1운동 참여자가 많다고 터를 물수당하고, 예배당도 헐려 1919년 10월 남문 밖으로 옮겼다.

남문 밖 금정(제일)교회는 1920년 북문 밖(중앙)교회, 1924년 양림교회로 분립했다. 양림교회는 1926년 290번지에 교회당을 신축하니 현 윤교회(기장)터다. 1954년 92-10번지에 중간(마당)교회(예장통합), 1971년 113-1번지에 아랫(계단)교회(예장통합)가 설립됐다.

의료선교는 오웬, 놀란, 윌슨(禹一善)으로 이어져 264번지에 현 기독교원의 모태인 제중원(濟衆院)이 개설됐다. 1908년 66번지에 송일학교, 256번지에 수피아여학교가 세워졌다.

1915년 당시 미국남장로회 선교부로 등록된 땅이 현재 양림동 지역만 해도 108(562)번지 1만7천931평 대지와 113(197)번지 2만1천627평 밭을 포함 42필지 8만4천여평에 달했다.

양림동에서 50정보 이상의 땅을 소유한 인사는 최상현과 정낙교다. 157번지 참봉정낙교는 1914년 석서정터에 양과정을 짓고, 1934년 양과농장을 설립했다.

다형(茶兄) 김현승(金顯承·1913~1975)의 삶터도 주목된다. 다형은 양림교회 김창국 목사의 2남으로 평양에서 출생, 1919년 7세 때 광주로 이주한 뒤 송일학교에서 초등과를 다닌다. 78번지에서 1938년 장은순과 결혼, 90-2번지로 분가하여 1960년 송일대학으로 갈 때까지 살았다.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원장)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2-722-0100

10215300-9999